

## 제4실 | 법구 | 전시 해설

### N-242 사리탑

불교의 시조인 석가모니의 유골로 여기는 사리를 안치하여 모시기 위한 보탑 형태의 용기입니다. 기단 뒤의 먹으로 쓴 글씨에서 1138년에 수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호류지 도인의 샤리덴(호류지 경내 건물)에 안치되어 있었다고 추정됩니다.

### N-70 대모 장식 경대

경대는 불전 앞에 경전이나 법구를 놓는 상으로 이 작품은 먹감나무나 검은 반죽이 있는 대나무인 반죽 등 진귀한 재료가 사용되었습니다. 다리에는 새나 나무가 새겨진 화각(쇠뿔을 이용한 공예품)이 붙어 있습니다. 원래는 이 위에 <작은 글씨로 쓴 법화경>(N-7)과 <구슬로 장식된 함>(N-89)을 올려놓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

### N-89 구슬로 장식된 함

구슬로 장식된 함은 742년에 쇼무 천황의 아내인 다치바나 노 고나카치 부인이 봉납한 경전함이라고 전해옵니다. <작은 글씨로 쓴 법화경>(N-7)을 넣어 <대모 장식 경대>(N-70)에 올려놓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 모서리에는 진주나 유리 구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.

### N-300 칩 상자

원래는 함의 본체 부분으로 뚜껑은 소실되었습니다. 칩의 껍질을 감으면서 상자를 짜고 소목으로 붙게 물들여 옷을 칠했습니다. 상자의 가장자리에는 대나무로 만든 테두리가 부착되어 있고, 상자의 안에는 <가사(승려가 입는 법의)>(N-35)가 담겨 있었습니다.

### N-284 여의

여의는 승려가 법회 등에서 설법을 할 때 손에 들고 위엄을 갖추는 의식용 도구로, 효자손 형태의 기원이기도 합니다. 이 작품은 물소의 뿔로 만들었으며 상단의 머리 부분이 작고 전체적으로 가는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는 나라시대 이전의 특징입니다.

### N-286 주미

주미는 동물의 털을 나무 사이에 끼운 후 털을 부채 모양으로 자르고 손잡이를 단 것으로 이 작품의 털은 전부 소실되었습니다. 쇼토쿠 태자가 나라현의 다치바나테라 절에서 승만경 경전에 관한 강의를 했을 때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.

### N-241-1 백만탑

764년에 일어난 후지와라 노 나카마로의 난 이후, 진호국가(국가를 안정시키고 지켜냄)와 멸죄(죄악을 소멸시킴)를 위해, 나라 지역 근처 10곳의 절의 10만 개의 무덤에 안치한 작은 크기의 삼층탑입니다. 탑의 몸체에 있는 세로로 난 구멍에 상륜(탑의 꼭대기 부분에 있는 금속제 장식)을 끼워 놓은 구조로 제작되었으며, 그 구멍에는 다라니경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.